월/요/광/장

이건철

명품은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우리나라는 FTA를 중심으로 한 개방시대를 맞아 농업 분야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이 자생력을 갖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물을 독자적으로 가공·유통하여 식품산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제껏 지역 식품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국내 식품의 가치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다.

식품시장의 세계적인 추세는 지역 농산물을 안전하고 고급 식품으로 인식시켜 대량생산된 대기업 식품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우리도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여 명품 식품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특히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국가적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할 시점이다.

먼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야 한다. 자동차, 전자 등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제조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식품 분야만큼은 선진국처럼 대중적 상품은 대기업이 공급하고, 명품은 중소기업에서 찾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식품기업의 기술개발과 마켓팅 측면에서의 각고의 노력과 혁신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중소기업 상품을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식품 분야에서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식품업계(담배회사 제외) '1조 클럽'이 2008년 10개에서 2010년 15개 대기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세계시장에서 고려인삼의 가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대기업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 자리를 외국삼에 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관행에만 집착하여 효능을 중시하는 세계시장에 '사포닌'이라는 소재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행히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홍삼전문 브랜드 '천지양'이 "하늘과 땅에 있는 좋은 기운을 사람에게 준다"는 가장 고귀한 이념을 바탕으로 홍삼의 유효성분인 '사포닌' 함량에 차별화를 두어 명품 홍삼 중소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홍삼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제품 유형이나 기업 규모를 보고 선택했으나, 최근에는 '사포닌' 함량을 기준으로 구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질적 수준이 높으면 얼마든지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는 본보기이다. 여타 업종에서도 이와 같은 높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정부가 앞장서서 찾아 지원·홍보하여 국민적 신뢰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명품 식품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부터 창업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선진국의 대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일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처럼 아이디어와 실력으로 직접 창업하여 명성과 부를 획득하는 꿈을 갖고 이러한 각오를 실현시키기 위해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실력을 연마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은 대기업이나 공직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밤낮 없이 시험과목 중심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공부할 뿐,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은 소수이다.

물론 창업특화 대학이 생겨나고, 창업동아리 활동도 활성화되는 등 창업 준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 시설비 투자금액의 15%를 지원받는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MB정부들어 시행했던 창업 활성화 대책의 시행착오를 보완한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요컨대, 개방시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품은 중소기업에서 찾고, 창업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업종의 첨단화에 따라 인력수요 감소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유망 식품기업 육성과 창업이야말로 유력한 일자리 창출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홍현수

변호사도 피고인석에 서보니 떨렸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소송과정의 체험과 실연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형사모의재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사법연수생들은 각자 판사, 검사,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의 역할을 맡고 실제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보통 연수생들은 판사, 검사 역할을 선호하고, 피해자나 피고인의 역할은 조금은 경원시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범죄자의 역할을 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일지도 모르겠다.

필자도 사법연수생의 신분으로 형사모의재판에 참여했는데, 역할을 정하는 첫날 피고인 역할을 지원했었다. 판사, 검사 등은 법조인의 삶을 살면서 거칠 수도 있는 반면, 필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나마 피고인 역할을 맡아 실제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지위를 이해해보고 싶었다. 실제가 아닌 모의재판이지만 재판은 진지하게 진행됐고, 모두 나름의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 피고인으로 나선 필자 또한 나름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모의재판 속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간접적이지만 이 모의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지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변호사가 돼 여러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형사모의재판의 추억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필자는 올해 다시 피고인이 되었다. 모의재판 속 가짜 피고인이 아닌 실제 피고인이 된 것이다.

필자는 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필자는 운전면허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즉 도로교통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필자와 같이 적성검사기간 도과 및 운전면허 갱신기간 도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는 사람은 2006년 10월1일부터 2011년 9월31일까지만 계산하더라도 175만 명에 이른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다소 억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는 드물다. 유사한 판례가 없는 것을 보면 필자가 처음일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위반한 구 도로교통법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1종 운전면허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구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를 차별했다. 그 외에도 구 도로교통법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 필자는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필자는 형사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면서 변호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왜소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준비해 간 여러 주장도 필자가 변호인이 된 다른 사건과는 달리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제1심에서 벌금 5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을 때에는 살짝 떨리기까지 했다. 필자가 그러할진대 보통의 피고인들은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어 자신의 유리한 주장마저 펴지 못할 가능성이 분명하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변호인으로서 좀 더 피고인의 주장을 잘 들어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주장은 없는지, 간과한 사실관계는 없는지, 법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등등. 이번 재판은 필자에게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을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다. 〈변호사〉

기고

고임세

若無技術 是無湖南 - 기술이 없다면 호남도 없다

〈약무기술 시무호남〉

'若無湖南 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국가)' 이 말은 1596년 7월16일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친구인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말이다. 국가존망의 위기에 그나마 조선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일 것 같다.

1592년 4월. 일본은 정명가도를 외치며 조선을 침략했다. 4월14일 부산진성, 4월28일 충주 탄금대를 점령한 왜군은 5월3일 한양성에 입성했다. 6월13일에는 평양성으로 진격해 전 국토를 유린했다.

왜군의 승리는 조선군의 무방비 상태의 전열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신무기인 조총 때문이었다. 활과 장검을 소유한 조선육군은 조총의 가공할 위력에 맥없이 무너졌다. 이러한 육전의 패배를 한순간에 역전시킨 것은 조선의 수군이었다.

1592년 7월8일. 한산도 앞바다에 학의 날개가 펼쳐졌다.

학·익·진! 조선수군이 펼친 학익진(鶴翼陳)에 의해 왜선 59척이 침몰하고 9000여명의 왜군을 섬멸한 한산도대첩이었다. 최정예 일본수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한산도대첩, 그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략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신예 함선인 거북선과 판옥선(板屋船), 그리고 강력한 화약병기인 총통(銃筒)을 개발·보유하고 있어 가능했다.

거북선은 판옥선 위에 거북등 모양의 덮개를 씌운 구조로서 적이 배안의 아군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으며 적병의 등선을 막기 위해 상판에 쇠못을 박아 방호력 측면에서 훨씬 강력했다. 또 두께 12㎝ 이상의 소나무를 사용해 제작했기 때문에 조총으로는 관통이 불가능했다. 배앞머리에 용머리를 붙여 화포를 설치한 거북선은 최선봉 돌격선으로서 용머리에서 화포를 내뿜으며 적진 깊숙이 찔러 들어가 적의 대열을 휘저어 지휘체계를 마비시켰다.

판옥선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 군함이었다. 판옥선의 특징은 갑판 위에 2층으로 된 판옥을 올린 것이다. 노를 젓는 격군은 1층 갑판에 위치하고 2층에는 전투요원이 승선하여 적을 내려다보면서 유리하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선체가 높은 덕택에 일본수군의 장기인 승선전투전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도 거뒀다.

판옥선은 주재료로 소나무를 사용해, 삼나무로 만들어진 일본수군의 주력인 세키부네보다 내구성과 강도면에서 훨씬 우수했다. 이 때문에 중량이 무거운 총통을 장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판옥선은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平底船)이어서 속도는 느리지만 안정감과 방향전환이 빨랐다. 탁월한 선회 능력을 가진 판옥선이 있어서 연속적인 함포사격이 가능했던 것이다.

조선수군이 승리하는 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당대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던 총통이다. 판옥선에 장착된 총통은 사거리와 화력면에서 조총을 압도했다. 천자총통에서 발사되는 30㎏의 대장군전을 맞은 적선은 산산조각이 나고 지자총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200여발의 조란환(鳥卵丸)은 일본수군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리라.

이처럼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승리요인 중 하나는 첨단기술력이 집약된 거북선과 판옥선, 총통과 같은 신무기를 개발, 활용했기 때문이다.

요즘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공공조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오늘날 공공조달시장에서 신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단연코 조달우수제품이라 생각한다. 우리 지역 기업들이 신기술제품을 많이 생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를 바라면서 건네고 싶은 한마디. "若無技術 是無湖南"

〈광주지방조달청장〉

무조건 비싼 것이 좋다는 생수 마케팅 경계하자

외출중에 생수를 곧잘 사먹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들은 종류도 참 다양해서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사실 맛을 보면 대부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어떤 화학 첨가물을 섞어서 만든 음료수가 아닌 바에야 생수가 뭐 대단하랴, 그리고 집에서 먹는 정수기 물과 얼마나 다르랴 싶다는 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입만 열면 웰빙을 주장하는 세상이라서 그런지, 물 한 잔도 까다롭게 고르는 소비자들 때문인지 생수는 생수 나름대로 엄청 경쟁하며 팔린다.

그래서 종류나 형태를 볼라치면 당장 한라산이니 지리산이니 하면서 산의 계곡에서 퍼왔다는 생수부터 깊은 바다에서 퍼 온 해양심층수, 미네랄 광천수라 불리는 탄산수에다가 요즘에는 1병에 6만 원이나 하는 초고급 빙하수까지 있다. 아마도 마트에서 팔리는 생수와 백화점에서 팔리는 초고급 생수를 다 합치면 수십 종류는 족히 될 걸로 안다.

과연 이런 생수들은 맛이나 성분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어 국내산 생수, 외국산 생수, 그리고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의 맛의 차이는 어떨까?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전문가와 생수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서 제품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같은 컵을 사용해 순수하게 맛으로만 평가했다.

그 결과는 국내업체의 해양심층수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이어서 서울 수돗물 아리수, 제주 생수와 프랑스 생수 순이었다.

물의 질은 생수와 서울 수돗물 아리수 성분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었다. 결국 국내산 생수나 수돗물이나 외국산 초고가 수입 생수나 맛과 질은 다 비슷한데 무작정 비싼 것이 좋다는 마케팅에 현혹돼 수입 생수를 선호하는 꼴이 되었다. 무조건 외국산 생수만 찾는 어리석은 소비를 벗어나 우리 땅에서 나오는 우리 물을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좌혜경·광주시 동구 산수동

사설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확보가 급선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또다시 늦춰져 결국 2015년 7월로 연기됐다. 당초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문화전당이 옛 도청별관 보존 문제로 2012년, 2014년으로 재차 늦춰진 데 이어 또 다시 연기되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광주 남구)에 따르면 문광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전당을 오는 2014년말까지 완공하고, 이듬해 7월 개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정률 48%를 감안하면 최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2014년 중반까지 완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는 2014년말까지 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 뒤 2015년 7월 광주하계U대회 등과 맞춰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전당 개관이 이처럼 수차례 지연되는 데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2015년 7월 개관도 의문시 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예산을 챙기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지역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10년 완공 목표였던 문화전당은 지난 2008년 5·18단체의 별관 철거 반대에 부딪쳐 2년간 차질을 빚어야 했다. 민선 5기 들어 광주시는 2014년보다 2년 앞당겨 2012년 부분 개관키로 했으나 콘텐츠 개발 미비로 포기한 상태다. 그런데도 개관이 또 한차례 연기됨으로써 시민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문화전당은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 현안으로, 2013년과 2014년 각각 1200억 원대의 국비를 확보해야만 3년 후 개관이 가능하다. 정부는 더 이상 문화전당 개관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도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공공장소 흡연단속 따로 노는 구청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대도시들이 최근 공공장소 흡연단속을 강화 중이지만 광주는 조용하기만 하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관련 행정이 '엇박자'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 원을 물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광주시가 공공장소로 지정한 곳은 공원과 버스승강장 10m 이내, 500세대 이상 거주 아파트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다.

하지만 5개 구청이 단속 범위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담은 조례를 만들지 않아 올 1월 이후 단 1건의 단속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단속에 나서야 할 해당구청에 시행 조례가 없는 탓이다.

현재 동구와 광산구·북구는 관련 조례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남구와 서구는 아직까지 제정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단속에 나서야 하나 인원을 새로 채용할 예산이 빠듯한데다 단속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흡연단속이 음주운전이나 쓰레기 무단투기처럼 현장에서 이뤄지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와 길거리 흡연 등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방지와 혐연권(嫌煙權) 차원에서 선진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이미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4월 광주시와 5개 구청 관계자가 금연조례 관련 간담회를 가졌으나 구청 관계자들이 예산과 단속 부담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시했다니 한마디로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시는 '전시성'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공공장소에서 흡연단속을 호소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6·15선언

2000년 6월 13일,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만났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양 정상은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데 의기투합했다. 나아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경제·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 5개항을 담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반도는 감격의 물결에 휩싸였다.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부풀었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됐지만, 두 정상이 순안공항에서 극적으로 만나 나눈 악수와 작별 포옹 장면은 다시 새겨봐도 가슴 뭉클하다.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으로 김대통령을 수행했던 박준영 전남지사는 15일 광주에서 열린 6·15 12주년 기념행사에서 "문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다가 14일 자정이 넘어서야 합의문을 받았는데 두 손은 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며 "이제야 한반도의 먹구름이 걷히겠구나. 다시는 남북이 총을 겨누는 일이 없겠구나 생각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적교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 철도·도로 연결 등이 봇물을 이뤘다.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2차 정상회담이 성사돼 '10·4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6·15 선언은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선(先) 핵폐기' 원칙 아래 대결적 강경론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천안함사건 등 잇단 도발적 행태는 남북경색을 더욱 심화시켰다.

6·15 기념행사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출범 첫해 8주년 행사에는 통일부장관이 정부 대표자격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지만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올 행사도 광주·전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열렸다. 화해와 협력의 '6·15 정신'은 정녕 이대로 잊혀져가는 것일까.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